

# 共産圈에 대한 美國의 韓國 防衛態勢 趨移, 1945~1950

- 美國 側의 戰略情報 秘密資料를 中心으로 -

金 基 兆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편찬위원)\*

1. 序 論
2. 韓半島에서의 戰後 美·蘇對決 胎動
3. 韓國戰 勃發 以前 韓·美 兩國의 敵情 事前情報
4.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 勃發 直前·後의 戰略 평가
5. 結 論

## 1. 序 論

韓國戰爭의 原因(遠因)은 韓半島의 38度線에 연한 分割이었다.<sup>1)</sup> 對日 參戰한 蘇聯軍이 1945년 8월 9일 慶興(慶興)으로 들어오고, 美國軍이 9월 9

\* 정치학박사, 외교안보연구원 전 명예교수.

1) 이에 관하여는 2001년 4월 『軍史』 제42호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韓國戰爭의 근인이 된 열강에 의한 韓半島 分割過程」, pp. 51-93 참조.

일 仁川으로 상륙한 것이 美·蘇간 대결의 시작이었다. 이로부터 韓國戰爭이 발발하던 1950년까지 美國과 蘇聯은 자기편의 영역을 확충하기 위한 冷戰시대에 들어갔다. 그 기간 중 양 진영은 대결구도를 고착화하여 가는데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기간 중 美國 정보기관들이 범세계적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특히 극동과 한반도에 대한 적정판단을 조사·검토함과 아울러, 그를 토대로 미군 당국이 세운 戰爭計劃[war plans]들을 찾아내어 특히 한반도 관련 부분을 조사·검증하였다.<sup>2)</sup>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1949년 美軍의 철수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의 근인(近因)의 진정한 배후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韓國戰爭 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 직전, 전쟁 중의 정보수집 과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미 군사당국이 韓國戰爭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미군은 당시 상상 이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韓國戰爭에 신속히, 거의 즉각 대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미 정보 당국이 수집·분석한 적정 정보가 어떠한가, 여하히 판단하고 있었는가를 조사·검증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한국전쟁의 발발, 즉 북한군의 남침 기미를 얼마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人的 情報網과 通信 情報網을 통하여 한국군과 미군이 수집한 정보수집 능력을 평가하여 보고, 끝으로 中共軍의 참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미 정보기관들이 충분히 파악하고도 불참전으로 오관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한편 韓國戰爭을 주도한 蘇聯군은 언제부터, 어떻게 그 전쟁을 위한 작전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을 北韓군에게 수교하여 인민군을 동원, 서울을 공략하게 한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情報技術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경과

2) 이에 관한 미국 CIA, JSC, NSC, AFSA 등의 자료들은 원래 당시에는 극비로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거의 다 비밀 해제되어, 미국 의회도서관, National Archives 등지에 microfilm화 되어 보관되어 있음. 이것들을 수 년에 걸쳐 필자가 현지에서 조사, 발췌, 필사하였음. 물론 기간된 자료들과도 대조, 확인하고 참조하였음.

도 찾아보았다. 그와 같이 하여 미·소 양 진영이 한반도에서 처했던 전쟁 과정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서 한국전쟁의 진면목을 도출해보려고 하였다.

## 2. 韓半島에서의 戰後 美·蘇對決 胎動

### (1) 戰後 韓半島에서의 美·蘇 對決 胎動과 情報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반도 남부에 진주한 미 제24군은 G-2의 정보부대를 최우선으로 입국시켜 해방되던 날 興南에서 있었던 일본제 原子爆彈 실험에 관한 정보수집에 전력한 흔적이 있었고 1947-48년간 북한으로부터 소련 측이 핵연료를 반출해 나가는 정보 등을 포착하는 등 상당한 정보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그들은 1945년 가을부터 Intelligence Daily Reports, Daily Summary, Weekly Summary, Special Reports, Order of Battle Reports, its Summaries 등[당시 I, II, III급 비밀문서]을 간행하면서 남한의 정세, 남북한군의 38선 충돌사건, 특히 북조선 진주 소련군의 동향과 북한의 정세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예: 소련군의 소령급 이상의 신상, 경력, 일거일동을 소상히 기록함]. 한국군 창설 이후 그러한 미 정보기술은 어느 정도, 특히 인적정보[Humint] 분야에서 전수되었던 듯하다. 다른 문서들은 한반도에서의 통신정보[Signet] 능력이 보잘 것 없었으며 특히 주한미군이 1949년 6월 철수하면서 아주 적은 수에서 全無로 떨어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쟁 발발시 그렇게 北韓군의 내침을 전혀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랬을까?<sup>3)</sup>

3) HQ, USFIK, *G-2 Periodic Report*, Vols. 1-7, 1945-1949. 6.; *Weekly Summary*, Vols. 1-5, 1945-1949. 6.; *Intelligence Summary*, Vols. 1-4, 1945. 9-48. 11.[한림대아세아문화 연구소 편, 자료총서, ②④⑤, 주한미군정보일지, 춘천, 1990-]; Mathew M.

K C I

---

Aid, "U.S. Humint and Comint in the Korea War :From the Approach of the War to the Chinese Intervention," in Richard J. Aldrich et al (eds.). *The Clandestine Cold War in Asia, 1945-65: Western Intelligence, Propaganda and Special Operations*(London : Frank Cass, 2000), pp. 38, 40.

## (2) 美蘇共同委員會의 결렬과 南北 分斷 고착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4대국 外相會議은 1945년 12월 25일 韓半島에 5년간의 4大國 信託統治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美蘇 兩軍의 共同委員會로 하여금 韓國 내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여 그 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방안에 대하여 즉각 독립을 소망하던 南韓에서는 反託으로 나섰고 南北韓 勞動黨과 左翼들은 贊託으로 나섰다. 2년여에 걸친 토의 끝에 美蘇 共同委員會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蘇聯側은 최초로 韓半島에서의 信託統治가 기왕에 蘇聯이 차지한 1/2을 내놓고 1/4만 차지하게 되는 韓半島 信託統治案을 찬성할 리가 없었다.<sup>4)</sup> 다만, 蘇聯側은 信託統治 期間 中 共産黨 등 좌익들의 활동으로 잔여 3개 지역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다면 하는 기대를 가질만한 것이었다. 반면, 美國側은 韓半島의 半(1/2)을 蘇聯側에게 양여(讓與)한 마당에 4個國 信託統治로 韓半島의 3/4이 되는 지역을 서방 3개국에 장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 그를 추진하려 하였을 것이다. 美國側은 그러한 속셈에서인지 南韓의 右翼團體들이 反託하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1946년 1월 5일자로 작성한 한 각서에서 트루먼 大統領은 “蘇聯과의 戰爭”을 예견하면서 蘇聯人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강경하게 대하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이 理解하는 유일한 언어는 몇 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蘇聯의 영향을 전 세계에서 견제하기 위하여 美國이 日本과 太平洋을 “완전히 관장” 해야 하며, 中國과 韓國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면서 강력한 中央政府를 세우게 하는데 있다고 트루먼 大統領은 주장하였다.<sup>5)</sup>

4)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Berg, 1989), pp. 44, 51.

5) Robert L. Messer, *The End of an Alliance: James F. Byrnes, Roosevelt,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pp. 161-163.

1946年初 韓國을 경유, 귀국한 해리만 駐蘇 大使는 “韓半島에서의 蘇聯의 의도는 東歐에서와 같이 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번스 國務長官, 戰爭省 要路 및 反論人士들까지 설득하였다. 그 당시 하지 장군도 “크렘린이 韓半島를 소련의 聯邦國家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논급하였다.<sup>6)</sup> JWPC는 1946년 1월 8일자 보고서에서 美軍의 숫자가 戰後에 격감하여, 歐에 8개 사단, 日本과 韓國에 전투력이 半도 안 되는 6개 사단 밖에 없기 때문에 美國은 효과적인 [防衛]能力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sup>7)</sup> 合同企劃參謀部(Joint Staff Planners: JPS)와 JWPC는 1946년 4월 13일 자의 參謀 研究書[JPS 789/1]에서 유럽에서 英·蘇 전쟁 발발시 美軍이 즉각 참전하지 않는다면, ……極東에서는 소련군이 그 작전을 필경 滿洲와 南韓(south Korea)으로 한정할 것이므로, 亞細亞 大陸 내에 광범하게 산재해 있는 美軍들은 蘇聯軍이 공격해 오면 日本으로 철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合同 情報參謀部(Joint Intelligence Staff: JIS)도 1946년 7월 9일자 보고서에서 서방 열강이 세계의 세력권을 분할할 조약을 蘇聯과 교섭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sup>9)</sup> 그러한 군사적 균형 문제에 관하여 JCS는 7월 26일자의 각서에서 …… 蘇聯軍은 韓國에 대해서도 급속히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공격해오면 美軍은 日本으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10)</sup>

中央情報部는 1947년 1월 8일자 “韓國事態에 관한 報告書”(ORE 5/1)에

- 
- 6) James L. Gormly, *From Potsdam to the Cold War: Big Three Diplomacy, 1945-1947*(Wilmington, DL: SR Books, 1990), p. 119.
- 7) JWPC 416/1, Military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Russian Policy, 8 January 1946.
- 8) JPS 789/1, Staff Studies of Certain Military Problems Deriving from “Concept of Operations for Pincher,” 13 April 1946, with Appendix A.
- 9) JIS 80/26, 9 July 1946.
- 10) JCS to Clark Clifford, 26 July 1946.

서, “현 교착상태 하에서 …… 특히 蘇聯은 北韓에서 병영화 작업에 상당히 성공하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蘇聯의 對韓政策 기조는 韓半島 내에 우호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蘇聯을 공격할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고 결론하였다. 蘇聯이 혼란시키고 있는 北韓軍은 美軍이 南韓에서 사태를 관장[control]하지 못하게 되면, 대규모의 침투를 통하여 개입할 것이다. 北韓에 강력한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蘇聯의 단기목표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韓半島 전체를 蘇聯의 極東 방위체제속에 편입시키려는 장기 목표하에서 美國의 南韓 점령은 그에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근래에 蘇聯의 선전과 선동은 駐韓美軍을 몰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1)</sup>

### (3) 韓國問題의 유엔 上程과 두 政府의 樹立

1947년 봄 韓半島에서는 美蘇 共同委員會의 실패로 통일된 臨時政府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北韓에서는 1946년 2월 이래로 “勞動黨 北朝鮮分局”이라는 黨 조직을 통한 人民委員會의 조직으로 이미 政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행정조직이 없었던 南韓에서는 1947년 2월 李承晩 博士의 “井邑 發言”으로 單獨政府의 필요성이 제창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美國側은 1947년 9월 韓國問題를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 감시하의 全 韓國의 총선거를 통해 韓半島 내의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울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8년 봄에 유엔 監視委員會가 유엔 決議로 조직되어 南北韓에서 총선거 감시 차 내한하였으나 北韓내 蘇聯측의 入北 거절로 南韓에서 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8월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었다. 北韓에서는 9월 그들 고유의 人民共和國 政府를 수립하였다.

JWPC는 1947년 8월 29일자로 極東에서의 作戰概念으로 “Moonrise”을

11) 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port: The Situation in Korea,” with Enclosure, ORE 5/1, 3 January 1947. 10 p. esp. pp. 1-2.[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까지 제출됨].

제출하면서, 極東은 美·蘇 양측에게 전략적으로 그 중요성이 [유라시아 보다] 2차적이지만, 蘇聯을 폭격할 美 空軍기지를 저지하기 위해 32개 師團의 蘇聯軍은 中國을 공격한 연후에 5개 師團으로 南韓을 D+20日에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렇게 蘇聯軍이 공격하여 오면 駐韓美軍을 즉각 日本으로 철수하도록 권장하였다.<sup>12)</sup>

1947년 11월 18일자로 美國 CIA가 제출한 “韓半島에서의 蘇聯 목표의 실현”이라는 보고서는 蘇聯의 韓半島에서의 책략을 어디까지나 全 韓國을 蘇聯의 衛星國家로 확보하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단언하면서 전후 蘇聯은 침투, 거점 확보, 조정을 통하여 지위를 확보하여 왔다. 유엔 決議에 의한 監視委員團의 入北 거부는 蘇聯의 제국주의적인 일방적 작태라고 단호하게 비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엔 監視委員團의 도착 이전에 美軍이 철수하면, 南韓에서는 北韓에 의한 궁극적인 지배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13)</sup>

#### (4) 韓國內 外國軍의 撤收와 危機 造成

美國의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는 1948년 4월 2일자 대통령 앞 보고서 “美國의 對 韓國 政策”(NSC 8)에서 한국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신속히 한국군과 경찰을 무장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과 기타 군대에 의한 공개적 침략 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미국의 주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sup>14)</sup>

12) JPWC 462/2, The Soviet Threat in the Far East and the Means required to oppose It [Code : Moonrise], 29 August 1947.

1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mplementation of Soviet Objectives in Korea,” ORE 62, 18 November 1947.

14) NSC 8, 2 April 1948, *FRUS, 1948, Vol. VI, Far East & Australasia*, pp. 1163-1169.

CIA는 1948년 10월 28일자 보고서(ORE 44/48)에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大韓民國 政府는 정치,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그의 存立(survival)의 전망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계속 받게 되는 한, 밝으며 호의적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大韓民國 政府는 미군이 철수하면, “蘇聯의 傀儡”인 北韓으로부터 침략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나, 미군 철수 이전에 한국군에 대한 충분한 물질적 원조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받는다면 효과적인 抑止力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up>15)</sup>

CIA는 다시 1949년 2월 28일자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1949년 봄에 철수하면, 南韓에서의 공산측이 조종한 폭동에 때를 맞추어, 滿洲에서 훈련된 北韓 인민군에 의한 침범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南韓의 보안군이 중국적으로는 그러한 침략에 대항할 능력을 배양하겠지만, 그러한 능력은 1949년 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나 1950년 1월까지도 그러한 역량을 성취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駐韓 美 軍事顧問團(USAMIK)이나 유엔 委員團(UNCOK)의 출현으로 미군 철수로 인한 역효과는 어느 정도 감소하겠지만, 근본적으로 韓國軍의 충분한 보강 없이는 大韓民國의 와해나 중국적인 공산 지배를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16)</sup>

國家安保會議는 1949년 3월 22일자의 보고서(NSC 8/2)에서 전기 보고서(NSC 8)를 재검토하여 잔류중인 미군 7,500명을 1949년 6월 30일까지 철수시키기로 하고, 그 철수 완결 이전에 大韓民國 政府에 군용장비와 군수품의 비축을 이관하는 한편, 美軍 軍事顧問團을 설치하며, 잔류 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對韓 지원을 추호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도 건의하였다.<sup>17)</sup>

1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rospects for Surviv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E 44/48, 28 October 1948, pp. 1-8, 13-14.

1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onsequences of US Troops Withdrawal from Korea in Spring, 1949,” ORE 3/49, 28 February 1949.

17) NSC 8/2, 22 March 1949, *FRUS, 1949, Vol. VII, Far East & Australasia, Part 2*,

1949년 5월 4일자로 CIA가 작성한 “美·蘇에 대한 極東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보고서는 “美·蘇 간의 전쟁이 그 당시로부터 1952년 12월 31일 사이의 어떤 시기에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양측간에 일어날 전쟁의 주요 목표는 상대방의 전쟁수행 능력의 파괴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1953년 이전에 일어난다면, 濠洲, 뉴질랜드, 필리핀, 썬이론, 日本 및 南韓(southern Korea)에서는 美國이 유리할 것이나, 南韓에서는 대 게릴라 작전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제 공헌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였다.<sup>18)</sup>

#### (5) 美國의 對蘇戰略 NSC 68의 編成

1949년, 가을 中國에서의 공산정권의 수립과, 蘇聯에 의한 원자폭탄의 실험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을 경악시켰으며 뒤흔들어 놓았다. 그 상황을 감안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蘇聯 측의 역량과 의도를 분석하고, 대처할 미국의 능력을 평가하며 대 전략을 수립하도록 관계기관에게 지시하였다. 그 결과,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 견지에서 양대 세력의 역량을 비교 검토하는 방대한 정책연구서(NSC-68)를 4월 14일자로 완성,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미국의 군사적 계획, 즉 전략과 군사예산 등이 부족하며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방대한 군사적 증강과 그를 위한 자원의 획기적인 동원을 건의하였다. 당시 蘇聯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층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蘇聯과 그 衛星國들은 1950년 중에 西유럽, 中東, 및 極東에서 준비를 마치고, 군사적인 행동을

pp. 969-978.

18)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Far East to the US and the USSR”, ORE 17/49, 4 May 1949.

개시할 것이라고, 당시 合參(JSC)은 예상하였다. 그 당시 모든 공산측 침략의 진원지는 蘇聯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상[韓半島는 아니었지만]은 그 건의서가 채택된 지 3개월만에 적중하여, 1950년 6월 25일 北韓 人民軍에 의한 南韓에 대한 침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毛澤東은, “Lost-Chance Thesis”의 예상과는 달리, NSC-68이 예상한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 대결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sup>19)</sup>

### 3. 韓國戰 勃發 以前 韓. 美 兩國의 敵情 事前情報

#### (1) 韓國 측에 의한 事前 軍事情報

한국전쟁 전에 여러 적정정보 중에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북한군의 전차 도입에 관하여 1949년 한국군 정보국의 연말 정보보고에 나왔었다. 그런데 일찍이 李亨根 장군은 1949년 4월 10일 張勉 주미대사, 趙炳玉 특사와 함께 방한 중이었던 주중 미군사령관 “워드마이어” 장군을 만나 “북한군이 이미 T-34형 탱크 약 250대의 1개 여단을 창설했다는 정보가 있었고, 인민군의 포는 122밀리 유탄포며 전투기는 200대에 이르고 IL-9 등 輕爆機도 갖고 있으며, 함정·포함 3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인민군의 중무장화에 감하여, 그에 필적할 수 있는 미국의 軍事援助를 강력히 요구

19) NSC 68(April 14, 1950),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FRUS*, 1950, Vol. I, pp. 234-292.; Odd Arne Westad, “Containing China? NSC-68 as Myth and Dogma,” *SAIS Review*, 19:1(Winter-Spring 1999), pp. 85-91.

했었다.<sup>20)</sup>

申性模 國防長官은 1949년 10월 하순 주한 美 軍事顧問團[KMAG]을 통하여 한국을 방문한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에게 북한군의 병력규모로서 인민군 145,000명, 朝鮮族 中國軍 2만명, 만주에 있던 중공군 8만명 등 가상 적군을 도합 245,000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사고문단에서는 북한군의 규모가 조선족 중공군 2만명을 포함, 북한군 92,500명(해병 5,000명 포함) 외에 철도경비대, 게릴라학교, 해안경비대 등 35,000명 등을 합하여 모두 127,500명이며, 만주의 중공군을 8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총 207,500명이라고 예측하였다.<sup>21)</sup>

사실 李承晩 대통령도 1949년 12월 12일 대미 비망록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똑같이 미국정부측에게 충분히 강조하였음이 나타나 있었으나, 미국정부는 그의 주장이 단순히 미국의 군사원조만을 더 얻기 위한 과장으로 오해, 판단하였다.<sup>22)</sup> 그러한 한국측의 보고 외에 미 극동군사령부도 1949년 11월 하순에 북한군이 이미 59대의 탱크를 소련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최초로 입수한 바 있었다.

1950년 1월 한국군 참모총장은 유엔한국위원단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시 북한군의 병력은 175,000명이며, 이들 가운데 2만명은 중공군에 복무했던 노련한 병사들임을 보고하였다. 1950년 5월 10일자로 한국 국방부장은 같은 지원단에게 당시 북한군은 5,000명의 병력과 173대의 탱크, 32척의 군함, 197대의 항공기를 38도선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이 보고는 5월 12일에 미 군사고문단에게도 그대로 報告되었으나 군사

20)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40.

21) 각서, 「주한군사고문단에서 콜린스 장군에게」, Oct. 28, 1949, 9/338(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총서, O112164).

22) "Memo from President Syngman Rhee," Dec. 12, 194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 29, 1996, pp. 222-223. [조성훈, 「전쟁을 전후한 첩보부대의 조직과 활동」, 국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2002), pp. 101-103. 에서 재인용.]

력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남한 군대로 북한군을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sup>23)</sup>

한편 미국측은 1950년 4월 15일에는 소련으로부터 260대의 탱크를 받아, 그 가운데 140대가 평양에 와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었다 한다. 그리고 바로 1개월 후인 1950년 5월에 보고된 미 군사고문단과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는 38선 부근에 새로 창설된 북한군 전차부대는 180대의 탱크, 10,000명의 병력과 이에 따른 보조무기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로서는 60대로 구성된 전차연대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과장된 것으로 평가했었다.<sup>24)</sup>

이상과 같이 전차부대에 대한 미군의 평가에 따르면, 전쟁 당시 한국에는 전차(US armor)가 없었고, 일본에도 중형 탱크가 없었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제105기갑여단 아래 제107전차연대, 제109전차연대 등에서 소련제 T-34 중형탱크를 200여 대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sup>25)</sup>

그러한 와중에서 1950년 4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군의 규모가 25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고, 그들은 항공기, 전함, 대포 등으로 무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군이나 경찰병력이 너무 많고 예산도 군사력에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잘못된 이야기(false stories)이라고 반박하고 북한에 대응할 장비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sup>26)</sup>

23) Harry Hansen(ed.), *World Almanac for 1951*(New York: New York World Telegram and Sun, 1951) [정용욱, “한국전쟁시 미군 방첩대 조직 및 운영”, 군사편찬연구소 편, 『軍事史 研究叢書』 제1집(서울: 국방부), p. 56.에서 재인용.]

24) 김계동, 앞의 책, p. 208; “Intelligence in War: A Brief History of MacArthur’s Intelligence Service, 1941-195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KLO·TLO 문서집』 자료총서 ③, (춘천, 1997), p. 297[조성훈, 상계 동에서 재인용.]

25) 최용호,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분석”, 『군사』 43호(2001. 8), p. 53; Vincent V. Mcroe and Alvin D. Coox, “Tank vs Tank Combat in Korea,” (April 1955), p. 10(군사편찬연구소, 338.) [조성훈, 전계 동에서 재인용.]

26) “Excerpt from Press Conference, Office of the President, Kyung Mu Dai,” Apr. 14,

육군본부 작전국장 張都瑛 대령은 한국전이 일어나기 약 1개월 전 정보국에서 작성한 종합적정보보고서로 긴급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장비면에서 포, 전차, 장갑차, 비행기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났다. 대포는 한국군이 91문, 북한군 609문, 전차, 장갑차는 국군이 장갑차만 27대, 북한군 272대, 비행기로는 국군이 비무장 10여대, 북한군 168대 등이었다고 밝히면서 적절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27)</sup>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약 1년전인 1949년 6월 1일에 미 극동군 총사령부는 그의 情報參謀部(G-2) 소속으로, 서울에 정보기관의 연락업무를 전담할 「韓國 連絡處」(Korean Liaison Office: KLO)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KLO는 그 때부터 약 1년간 1950년 6월 24일까지 총 1,195건의 정보 보고를 동경 G-2 본부에 제출하였다 한다. 그 기관이 남겨 놓은 文件으로도 거의 다 알 수 있을 정도이었다.<sup>28)</sup> 이 KLO의 주된 임무는 북한의 정부, 군사, 산업기관에 침투하여 적정을 파악 보고하는 정보수집 기관이었으며 한국 정보기관과의 연락 업무도 포함하여, 동경의 극동사령부의 G-2와의 연락,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KLO 정보요원들은 북한군의 사단이나 참모부에 직접 침투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과 동경 그리고 워싱턴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남침 정보를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계기관들은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결론이나 대책에도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195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 29(서울:1996), pp. 297-298.

27) 예관수·조규동, 『한국의 동란』(서울:병학연구사, 1950. 12), pp. 54-55. [이호재,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법문사, 1975), pp. 347-348에서 재인용]; 육본 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서울:육본, 1970), p. 57.

28) MacArthur Memorial Library, *Papers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RG 23, Willowby Papers, Norfolk, VA.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서울:나남출판사, 1997), p. 582 에서 재인용]; 정호근, 「6·25전쟁 발발과 조기경보 문제에 관한 연구」, 『國防研究』 44:1(2001. 6.), pp. 261-2.

29) 박명림, 상계서, pp. 582-3; 정호근, 상계 논문, p. 262.

(2) 蘇聯, 中共, 北韓에 대한 戰略情報

스탈린은 1950년 1월 말경, 毛澤東과 동맹조약을 마무리 하면서, 그 이면에서 극비리에 金日成에게 모스크바로 와서 韓國戰을 위한 合同 準備(joint preparations)를 성안하자고 통보하였다. 그는 1월 30일자 스티코프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전에 대한 “승인을 부여할 용의가 돼 있다”(ready to grant approval)고 통고하면서, “모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상, 그와 같은 대규모 작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sup>30)</sup>

蘇聯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상세한 戰爭計劃 指針을 承認[受領] 받은 金日成과 朴憲永은 5월 13일 毛澤東을 면담하고, 시기[未定으로]를 제외한 韓國에서의 전쟁계획을 설명하였다. 毛 主席은 스탈린이 臺灣이 아닌 韓半島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데에 크게 놀랐고, 분개하였었다 한다.<sup>31)</sup>

1949년 12월 18-19일간 毛澤東이 劉少奇와 周恩來에게 보낸 전문을 蘇聯 측이 방청하였던 것과 같이 미국 정보기관도 그 것을 감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1950년 1월30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한국전에 대한 승인을 부여한 지 48시간 이내에 상술한 바와 같이 美國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2)</sup>

위의 情況으로 보아 美國이 蘇聯의 暗號를 해독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유는 그 직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커다란 제의를 하고 있

30) Volkogonov, Dmitri, “Should We Be Frightened by This? -Behind the Scenes of the Korean War,” *Ogonek*, no. 25-26(June 1993), p. 5. [그는 이중에서 스탈린이 2월 9일자로 한국전의 平壤側計劃을 승인하였다고 함]; CWIHP, “Stykov to Stalin re Meeting with Kim,” *Bulletin*, 6-7, chap. 2, n. 3, p. 36.

31) CWIHP, “Rochin to Stykov, 13 May 1950,” *Bulletin*, 4, p. 61; Thornton, op. cit., pp. 106-107.

32) Volkogonov, *Ogonek*, op. cit., p. 5.

기 때문이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TICOM이 소련 어선 기기를 획득한 이래로, 미국의 국가 보안청(National Security Agency : NSA)와 그의 육군 보안청(Army Security Agency)은 FBI와 협조 하에 蘇聯의 외교, KGB 및 교역용 암호를 Verona 돌파를 계기로 해독하는데 큰 진전을 보았었다고 한다.<sup>33)</sup> 최근에 미국에서 널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미국 공산당들이 1941년이래 뉴욕과 桑港에서 情報活動을 하면서 蘇聯 KGB에 송신한 暗號 전보들을 해독하여 알고 있었으며, Rosenberg에 의한 원자비밀의 소련 전달도 그로서 알게 되어 그들을 포착하여 처형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통신정보를 도청하고 해독하는데 막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도 상당한 노력을 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sup>34)</sup> 그러던 것을 1948년 어느 날에 그러한 소련의 암호 탐지는 갑자기 “암흑의 금요일”(Black Friday)를 맞이하였다. 그 후 미·소 양측 서로 상대방의 정보기관에 침투하여 상대방의 비밀을 상당한 정도 탐지해 내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한다. 1949년 한국전 발발 1년전에 미국의 정보기관은 육·해·공군을 합하여 미국 군대 보안처[Armed Forces Security Agency : AFSA]로 개편되었다. 이 기관은 전 세계적인 수요에 당하여 한반도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sup>35)</sup>

그럼에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1949년 5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우선순위 15위에 있던 북한의 통신을 도청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소련의 정보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 우연하게도 북한이 소련의 통신체계와

33) Lamphere, Robert J. and Tom Shachtman, *The FBI-KGB War: A Special Agent's Story*(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pp. 79, 91, 311; Benson, Robert L. and Michael Warner(eds.), *Verona: Soviet Espionage and the American Response, 1939-1957*(Washington, D. C.: National Security Agency, 1996); Martin, David, "The Code War," *The Washington Post Magazine*(May 10, 1998), p.14.

34) Thornton, *op. cit.*, pp. 122-123.

35) Bamford, James, *Body of Secrets*(New York: Doubleday, 2001), pp. 23-24.

절차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 정보원들은 이의 출처가 소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개전이 되면서 서둘러 챙겨 보았다. 그 자료는 그들 대조의 기초가 되었다. 1950년 2월경부터 대량의 의약품들이 소련에서 북한으로 선적된다는 소련의 암호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많은 소련의 통신 메시지가 남한을 향하여 발신되고 있는 것도 연약하였던 주일, 주한의 미국 Signet들이 포착하였다.<sup>36)</sup>

1950년 봄을 통하여 미국 정보기관들은 蘇聯이 수천 톤의 무장들을 북한으로 수송하고 있던 것과 中國(共産側)이 臺灣에 대한 방대한 침공 船團을 결집하고 있던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는 언론에 대한 철저한 Breakout가 실시되었으며,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많은 경고가 미국 지도층에 의하여 묵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지에는 여러 차례 臺灣 해방을 위한 中國軍의 증강 상황이 보도되었으며, 臺北 지역으로부터 나온 정보들도 많이 보도되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경고에 관한 보도는 이상하게도 중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sup>37)</sup>

모스크바에서는 1950년 6월10일 “한반도 統一을 위한 행동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토의하는 중대한 회의가 국방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당시 韓國課長이었던 “투마노프”(Tumanov, Grigorii)는 회고하였다. 그 승인 내용을 “차랴킨”(Tsarapkin, Semen K.)이 평양으로 가지고 가서 김일성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한다.<sup>38)</sup> 많은 학자들은 金日成이 그의 통일을 위한 남침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전문을 48회나 보냈기 때문에 韓國戰爭을

36) *Ibid.*, p. 25; David A. Hatch, *NASA Korean War, 1950–The Korean War: SIGNET Background*, nsa.gov.korea.gov/korea/papers(rev. Sept. 18, 2000), pp. 7–8/28.

37) *New York Times*, Feb. 1, 2, & May 4, 1950; *idem*, “South Koreans Warned,” May 11, 1950, p. 14.

38) Tumanov, Grigorii, “Stykovaia ataka Kim Ir Sena,” [Kim Il-sung’s Bayonet Attack], *Novoe Vremia*, 26(1993), pp. 32–34. [이 논제 중 styk(bayonet)는 스티코프 대사를 지칭하는 것이라 함].

“金日成의 戰爭”이라고 논급하고 있다.<sup>39)</sup>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전보를 쳤다고 하더라도 스탈린이 그 자신의 결심과 이유로 그 작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허가하고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金日成의 소망이 이루어졌을까? 결과적으로 볼 때, 韓國戰爭과 그 후의 冷戰의 격화는 스탈린의 行爲(doing) 작품이었다”라고 한 학자가 정확한 反論을 낸 바 있었다.<sup>40)</sup>

#### 4.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戰爭 勃發 直前·後의 戰略 평가

##### (1) 假想敵의 軍事的 力量과 意圖 評價

북한군의 침공이 임박하였다는 사전정보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였는데도 그 경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이하게도 그 중 아무 것도 언론에 나타나지도 못하였다. Brownell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여러 정보기관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7개월 이전부터 소련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하여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하였다”하며, 1950년 4월 12일자 Watch Committee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극동군사령관이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北韓 人民軍이 1950년 6월에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陸軍省 대표는 이 문제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A report relayed by CinCFE stated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39) Weathersby, Katherine, “New Findings on the Cold War,” CWIHP, *Bulletin*, Ser. 3(Fall 1993), p. 14; Tucker, Robert C., “The Cold War in Stalin’s Time: What the New Sources Reveal,” *Diplomatic History*, 21:2(Spring 1997), pp. 277-78.

40) *Ibid.*, p.277.

Army will invade South Korea in June of 1950.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of Army undertook to ask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is subject.”<sup>41)</sup>

이 정보는, 그 후[1950년 7월 31일 회의시] 육군성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공군계통에서 나왔었는데 [이는 美空軍의 特別調査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 OSI)이 4월 중순 소련이 틀림없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보고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그러한 보고들은 그 공군에서도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 당시 한반도는 Watch Committee에서 다른 여러 지역과 함께 관심 대상이었으나, 그 위험 순위는 5위에 불과하였고,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한국에 관해 소통된 정보들은 어설피게 다루어졌다고 한다.<sup>42)</sup> 그런데 그 보고서는 正確하였던 것이, 김일성이 스티코프 대사에게 같은 날에 말한 것이라 한다.<sup>43)</sup>

5월 초에도 미 육군정보국은 “북한군의 38도선 방향으로 꾸준한 전진 배치는 …… 공세행위의 준비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5월 23일 육군정보국은 “적대행위의 발생은 한국에서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였다.<sup>44)</sup>

미 군사고문단[KMAG]은 1950년 6월 중순에 작성한 정기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한국 군대가 25일 이상 방어

41) Brownell, George 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Laguna Hills, CA: Aegean Park Press, 1981), pp. 40-41; Andrew, Christopher, *For the President's Eyes Only: Secret Intelligence and the American Presidency from Washington to Bush*(New York: Harper-Collins, 1995), p. 187; Mastney, *Cold War*, *op. cit.*, p. 95.

42) Brownell, *Ibid.*, pp. 41-42.

43) Mastney, *op. cit.*, p. 95.

44) RG 319, Entry 96, Box 130, ACS, G-3 Operation Reports, 091 Korea, NARA;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서울: 나남출판사, 1997), pp. 582-584.

할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 사태는 중공이 중국을 석권시킨 것과 같은 종류의 재앙을 당할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45)</sup>

미국 中央情報部가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19일자 「北韓정권의 최근 능력」이라는 평가보고서에서, “人民共和國은 蘇聯이 확고하게 관장하는 衛星國家로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그의 존립을 전적으로 蘇聯에게 의존하는 정권이다.” …… 그 北韓 政權은 南韓에 대한 지배를 연장하기 위한 대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宣傳, 浸透, 怠業, 顛覆 및 계렬라 作戰 등 현행 계획을 속행할 능력이 있다 …… 동시에, 北韓의 軍隊는 단기-장기 군사작전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南北韓 군대가 전투, 훈련, 군사지도 면에서 대등하지만 무장, 중화기, 항공기 등에서 北韓側이 우월하다. 北韓 군대는 현재의 조직과 지원으로 서울의 점령을 포함하여 南韓에 대한 단기 군사작전으로 제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北韓軍의 장기적 군사작전의 능력은 蘇聯으로부터의 병참 지원의 증대 여부에 달려 있다 …… 蘇聯의 北韓에 대한 원조는 아마도, 최후 방편이 아니고는 蘇聯 혹은 中共의 정규군 부대에 의한 직접 참전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蘇聯은 전면전을 우려하여 그의 軍隊를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이며, 蘇聯은 北韓에 대한 中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바라기 때문에 中共軍의 정규부대를 韓國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北韓이 분명히 군사면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지만 蘇聯과 中共軍 부대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南韓 전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共產側의 기도를 방해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① 南韓人들의 반공 태도 ② 南韓 군대의 끈질긴 전의 ③ 共產政權에 대한 대중 지지의 결여 그리고 ④ 北韓政權의 훈련된 행정 및 기술요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고 평가, 예측하였다. 즉, 미국 CIA는 5월 15일자 기준으로 작성한 「北韓정권의 최근 능력」이라는 보고서에서 “훈련되고 잘 무장된 북한 인민군 부대들

45) FRUS, 1950 Vol. VII, Korea(Washington, D. C.: GPO, 1976), p. 105.

이 38도선 지역으로 남진 배치되어 있다…… 탱크와 중포들도 최근 수개월 간 38선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였다”고 분명한 경고를 발설하였던 것이다.

맥아더의 극동사령부도 같은 6월 19일자로 “적의 공세가 임박하다는 강력한 증후가 있다”고 하는 정보보고를 워싱턴에 송달하였다. 전쟁 발발 직전에 주한 무쵸 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북한군에 의한 남한에 대한 침공 가능성에 관하여 심히 우려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북한 군사력의 우세는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시 북한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다”……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탱크와 重砲들도 최근 수 개월간 38선쪽으로 가까이 이동하였다”고 분명한 경고를 발설하였던 것이다.

CIA의 평가보고서를 요약하면,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북한 인민군 부대들이 38도선 지역으로 남진 배치되어 있다…… 탱크와 重砲들도 최근 수 개월간 38선쪽으로 가까이 이동하였다…… 그 규모는 남한 육군의 군사력과 유사하거나 좀 더 강하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탱크와 重砲 부대도 38선 부근으로 근접 배치되었다. 수도 서울의 점령을 포함하여 제한적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북한이 소련이나 중공군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한반도 전역을 통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특히 소련이 북한군에게 그러한 남침을 고무, 충동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예견하면서 제한된 경고를 한 바 있었다.<sup>46)</sup>

맥아더의 극동사령부도 같은 6월 19일자로 “적의 공세가 臨迫하다는 강력한 전투기 등”……과 …… “중공군에서 승전에 가담하여 훈련된 조선의 용군들이 속속 북한에 들어오고” 있으며 “북한에 남한을 정복 점령하려는 공산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위협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간곡히 예측하면서 엄중히 경고하였다.<sup>47)</sup>

4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urrent Capabilities of the Northern Korean Regime,” ORE 18/50, 19 June 1950, FRUS, 1950, Vol. VII, pp. 109-121; 정호근, “6·25전쟁 발발과 조기경보 문제에 관한 연구,” 『國防研究』, 44:1(2001. 6.) p. 264 .

47)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6 June 1950.

이러한 정보보고를 읽고도 적의 공격을 짐작하지 못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리지웨이(Ridgeway) 장군도 후일의 미 의회 증언에서 설파하였다.<sup>48)</sup> 싱그라브(Singlaub, Gen. John)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북한에는 수 개월 전에, 때로는 수 년전에, 잠입시킨 간첩(agents)들이 있으므로 북한측의 전쟁준비 등을 탐사하여 남쪽에 꾸준히 보내오고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훌륭한 정보의 유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49)</sup>

## (2) 6·25 南侵 후 美國의 敵 意圖와 군사력 평가 및 대처방안

6월 25일 北韓 人民軍의 남침이 시작된 지 약 15시간 후인 6월 25일 저녁 7:45분(미국 동부시간)부터, 트루먼 大統領 주재하에 관계장관들 및 각 군 총장들이 참석한 國家安保會議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논의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치슨 國務長官: 맥아더 장군에게 韓國에 무기와 장비를 추가로 제공토록 지시할 것, 후퇴하는 美國人에 대한 공중 엄호를 제공할 것, 第7艦隊를 臺灣 水域으로 파견하여 中國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할 것.

브래들리 參議長: 蘇聯은 전쟁 준비가 아직 덜 된 듯한데, 어디엔가 가선을 그어 행동을 하여야 하는 마당에 韓國 사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에치슨 長官의 제의에 동감함.

샤만 海軍作戰部長: 소련인들이 지금 전쟁을 원치 않는 듯하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전쟁을 해 줍시다. 韓國의 현 사태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유

48)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CMH, 1972), pp. 63-64; Ridgeway, Gen. Mathew B., *The Korean War*(New York: Doubleday, 1967), pp. 13-14.

49) Singlaub, Gen. John K., *Hazardous Duty: American Soldier i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Summit Books, 1991), pp. 164-65. [그는 1948-1949년에 CIA에 차출되어, 만주, 남한, CIA본부 중국과장 등을 역임하였음. 사단장으로 주한미군에 부임한 그는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안을 공공연히 반대하다가 파면되었던 인물임].

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韓半島는 日本에게 대한 전략적 위협이다. 東京에서 조사단을 보내고 KMAG의 병력을 증강할 것을 제의함.

밴던버그 空軍參謀總長: 北韓軍의 탱크들을 우리 空軍機로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蘇聯 공군이 안 나온다고만 가상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蘇聯 極東空軍을 파괴할 것이냐는 大統領의 질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原子爆彈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함.

힐레터 空軍長官: 소련군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극동군으로 충분하다. 맥아더 장군에게 단순한 철수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여 극동 평화 유지를 위한 계산된 모험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존슨 國防長官: 애치슨 長官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맥아더 장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는 반대하고, 韓半島에 지상군을 파견하는데도 반대함.

트루먼 大統領의 決定: ① 맥아더에게 韓國에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지시할 것 ② 韓國에 조사단 파견 ③ 지정된 함대를 일본에 파견 ④ 空軍은 極東蘇聯空軍을 없애 버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 ⑤ 蘇聯이 다음에 쳐들어올 지역이 어디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 추가적으로 北韓의 탱크에 대한 空軍 엄호를 위한 작전은 필요시 취하라고 부언하였다.<sup>50)</sup>

合同參謀部는 韓國戰이 발발하자 6월 29일 맥아더 將軍에게 만약에 蘇聯軍이 韓國에 들어오면 美軍은 자체 방위에만 임하되, 전황을 격화시킬만한 어떤[군사]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美國이 臺灣도 방위하겠지만 國府軍이 본토를 대거 공략하는 것은 저지하기로 하였다.<sup>51)</sup>

다음날 JCS는 韓國에서의 蘇聯의 의도가 美國의 신뢰도를 격하시키고 NATO 회원국들의 용기를 저하시키며 同盟을 유지하려는 美國의 의지를 시험하며 전략적으로 유용한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韓半島에서의 전쟁발발을 전면전의 시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sup>52)</sup> JCS에 의하면

50) *FRUS, 1950, Vol 7, Korea*(Washington, D.C.: U.S. GPO, 1976), pp. 157-161.

51) JCS 1776/6, 29 June 1950.

한국전쟁이 전면전의 첫 전투이었다라면, 美國의 전략은 韓半島로부터 철수하여 “域外措置 計劃”[Plan Offttacle]을 집행하려고 하였다.<sup>53)</sup>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13일, 미 각군 참모총장과 현지 맥아더 總司令官間的 韓國戰 사태에 관한 평가[電通]회의에서 개진된 중요 內容은:

- ① 中共軍의 韓國戰에 참전하면, 그들을 北韓에서 차단할 것이다. 획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原爆의 사용을 고려하겠다.
- ② 매일 航空機 30대로서 적군을 충분히 고립시킬 수 있다.
- ③ 北韓내 中·蘇 공장에 대한 공격은 韓滿, 韓蘇 국경에 근접한 폭격 금지 지시 때문에 삼가고 있다.
- ④ 반격 시기는 단정하지 못하지만, 3개 사단으로 퇴각하는 北韓軍을 추격할 것인데, 증강된 군으로 上陸 작전을 감행하여 北韓軍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괴멸시키는 것으로 北韓 전역을 점령할 필요가 있으며 작전 종결시에는 문제들을 마무리하여 韓半島를 통일하게 할 것이다.<sup>54)</sup>

### (3) 蘇聯이 작성한 북한군 南侵計劃

개전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자 슈티코프 장군이 자하로프(소련 국방 장관인 듯함)에 보낸 보고문에 의하면, [蘇聯]一般參謀部の [作戰]計劃에 따라 조선인민군의 집결을 6월 12일에 시작, 6월 23일 완료했다는 것, 사단 단위의 작전계획과 지역정찰은 소련군 고문관들의 참여로 집행되었다는 것, 남한군이 38선을 침범하여 공격하여 왔다는 [소련]국방부의 정치명령을 [인민군]부대원들에게 읽어주었으며, 조선[DPRK]정부는 조선인민군에

52) JCS 1924/10, 30 June 1950.

53) JCS 1776/13, 2 July 1950.

54) Assessment of the War Situations in Korea by Top U.S. Military Commander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orth Korean Aggression, 13 July 1950.

게 반격을 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작전지도는 1943년 (소련) 일반 참모부가 간행한 것이라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sup>55)</sup>

그러한 작전지도를 소련군으로부터 받고 급하게 번역한 후 그를 토대로 남침을 감행하여 서울을 공략, 3일만에 점령하였다. 대단한 전과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서울 이남으로 남진하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소련 작전계획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소련군측이 그것을 만들지도 않았으니 없어서 못 준 것이다. 소련 전략, 작전계획관들은 서울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이 날 줄로 오산하였다. 춘천 지역에서 한국군 6사단의 탁월한 항전으로 인민군의 남진이 3일이나 지체되었고 수원을 우회하려던 서울 포위작전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sup>56)</sup> 이렇게 작전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작전계획을 세운 作戰指導官들이 나서서 적응하는 새로운 전쟁지도를 하여야 하는데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장교들은 38선을 넘어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별 볼일 없이 3일간이나 서울에서 허송세월만 하면서, “항복을 받을” 한국측 요인들의 체포작전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인들은 이미 피난길에 올라 서울에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잘 몰랐지만 소련군은 작전지도만 주었지, 그 지시를 수행할 작전계획에 따른 암호통신문의 코드나 하달방법 등, 기밀 세부내용을 인민군에게 주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나마 남진하던 북한군의 통신체계는 1950년 8월경에는 무수한 미 공군의 폭격으로 거의 붕괴되었었다.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통신상태를 연구한 한 비밀 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첫째 북한군의 통신장비 부족은 최초부터 보급·수송능력의 결함으로부터 막대한 전투손실로 온 무선통신기기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었었다. 특히 전자통신 장비를 위한 무선통신[라디오] 기기와 그 부품들은 애당초 개전 초기

55) “To Secret Report on Military Situation,” by Shtykov to Comrade Zakharov, *The Cold War in Asia. CWIHP Bulletin*, Issues 6-7, *op. cit.*, (Winter 1995/1996), pp. 39-40.

56) 蘇鎮勳, 전계서, 韓國戰爭의 起源, pp. 179-85.

부터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1950년 8월말 경에는 북한군의 무선 통신망은 거의 전면적으로 깨져 버리고 말았다. 기술 훈련된 통신인원의 보충 결여에 더하여, 무선통신망의 급격한 결손은 북한군 각 부대의 전투능력에 막중한 손실로 이어졌다.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은 부분은 무선 통신에 크게 의존하던 정찰, 탱크 및 기타 부대들이었다.<sup>57)</sup> 그래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내려 왔을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민군 간의 작전 지시, 연락 등을 평문으로 통화하는 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 한국군의 정보장교들이 그 연락사항을 쉽게 파악하여 역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4) 유엔군 北進 후 中共軍의 介入에 관한 判斷 錯誤

1950년 5월과 6월에 미국의 통신정보망[Signet]은 7만명의 중공군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 雲漢으로 이동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다음달에는 임표[林彪]의 군대가 한국전에 개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상해로부터 접수하였다. 그 후의 보고는 중부 중국의 철도망이 만주로 가는 군대로 북새통이라는 것이었다. 9월초에는 AFSA는 한만 국경지대에 중공군 6개 지역군[field armies]가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였다.<sup>58)</sup>

中央情報部는 仁川상륙작전 직전인 1950년 9월 8일 中共軍의 韓國戰에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한 정보각서[제324호] 보고서에서, “中共軍이 北韓에 직접 개입할 지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中共(CCP)이 滿洲에서의 병력증강에 관한 보고와 기존의 잠재력으로 보아, 中共과 蘇聯은 훈련된 무장 교체 인원들을 지원함으로써 北韓 침공군은 연말까지 南韓 전체를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中共측에 의한 美國의 침략, 滿洲 국경의 침범 등의

57) Mathew M. Aid, “U.S. Humint asnd Comint in the Korea War,” *op. cit.*, pp. 46-47; ATIS, Research Supplement/Interrogation Report: Enemy Forces #4, p. 3, MACL Gen. MacArthur Library, Norfolk, Va.)

58) Bamford, *op. cit.*, p. 28.

비난은 침략자 또는 만주국경의 침범 등으로 보아 공개적인 행동으로 나올 전초단계인 듯하나 절박한 공개적인 움직임의 배후 설정일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의 막중한 반향을 고려할 때 中共의 韓國戰 참전은 규모는 상당하겠지만, 그 악영향을 고려하여 中共(CCP)은 좀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전에 참전할 것이며 「滿洲 義勇軍」을 북한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었다.<sup>59)</sup>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의 仁川上陸작전과 10월 평양의 함락 위기에 처하여, 스탈린은 10월초 毛澤東에게 보낸 서한에서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5-6개 사단을 朝鮮에 급파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후일 그 전쟁에서 中國 義勇軍이 現代戰法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었다고 피력한 바 있었다.<sup>60)</sup>

스탈린은 그 직후인 10월 9-10일 周恩來와 면담한 자리에서 人民軍들이 美軍機의 絨緞爆擊으로 그가 승인한 한국전선에서 무수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인명피해를 低平價 하면서, 사실 “북한은 그들의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다. 미국인들은 그 전쟁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쟁을 끝내려할 것이다. …… 그래서 여기에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논급함으로써 무자비한 그의 비인간성을 露명한 적이 있었다.<sup>61)</sup> 사실상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인민군인 사람만을 주로 제공하였고 蘇聯이 전쟁에 중요하고 불가결한 戰略, 作戰計劃, 武器 및 軍需物資支援 등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5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robability of Direct Chinese Communist Intervention in Korea,” Intelligence Memo No. 324, 8 Sept. 50, In CIA Research Report, *Japan, Korea, and the Security of Asia, 1946-1976*, (ed.) by Paul Kesaris, Microfilm Project 86/213M. RR(Frederick, MD: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3), 4 p.

60) Weathersby, op.cit., pp. 277-78; CWIHP, “Cold War in Asia,” *Bulletin*, 6-7(Winter 1995/96), pp. 59, 116.

61) CWIHP, *Bulletin*, 6-7(Winter 1995/96), pp. 12-13; Zubok, Vladislav, “Stalin’s Plans and Russian Archives,” *Diplomatic History*, 21 :2(Spring 1997), p. 304.

그 후 중국의용군의 실제 참전 직전인 10월 15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과의 요담에서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한 바 맥아더는 그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같은 날 제출된 CIA 보고서의 “中國共產軍의 한국전예의 全面的介入 威脅”에서 極東의 심각한 사태를 보고하면서 中共의 전면적인 對韓半島 개입은 계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모든 알려진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세계대전을 막겠다는 蘇聯의 결심으로 그러한 中共의 행동은 1950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蘇聯 지도층이 韓國戰에서의 예상되는 손실로 보아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뒤따를 전면전의 모험을 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蘇聯의 韓國戰 介入은 韓國事態 자체에 근거하지 않고 전면전이 그들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때를 기초로 참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기간 중의 개입은 북한군에 대한 은밀한 원조를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sup>62)</sup> 지나간 中國 義勇軍의 실제 참전 규모를 회고하여 보면 맥아더 장군과 CIA의 그와 같은 중국의용군 개입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수 시간 내에 잘못된 판단으로 노정되었고 전적으로 的中시키지 못하고 빚나가는 실수를 범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그의 정보참모인 위로비(Willoughby, Gen. Charles) 장군은 中國義勇軍들이 한국전 참전 초기에 많은 전과를 올린 이유를 중국(CCP)측이 유엔군의 전쟁계획(war plans)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양 장군은 중국측이 미군들이 鴨綠江 이남 지역만을 장악하기로 한 미국의 정책결정을 사전에 탐문하여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무성의 한 관리는 국무성 직원들과 접촉이 있었던 필비(Philby)나 아마도 버그스(Burgess)가 그러한 미국의 정책결정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한반도 내에 局限시켜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主敵을 소련으로

62) Bamford, *op. cit.*, p. 28: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r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A. Threat of Full Chinese Communist Intervention in Korea,” ORE 58/50, 15 October 1950. 3 p. [Decl. 10-15-79].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소련측에게 확실하게 자주 변동하는 북한 인민군의 기술적인 암호와 그 난수표[亂數表]를 파고 들어가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었다.<sup>63)</sup> 그러한 미국의 정책 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 交戰國軍들이 유엔군과 대적하는데 있어서 그 정보를 用兵 상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에 발간된 “임표(林彪) 장군의 공식 傳單”에는 워싱턴 당국이 맥아더를 견제시켜 우리 보급로에 대한 적절한 보복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확신이 없었더라면 나의 兵員과 군사적 위신을 모험하면서까지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술회한 바 있다.<sup>64)</sup> 그 당시의 전황을 되돌아 볼 때 그러한 傳言들이 사실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는지 중국측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 마음이다.

美國政府는 韓國戰爭을 제한전쟁으로 지탱하기를 소망하여, 1950년 10월 30일 JCS는 맥아더 장군에게 美軍이 38도선 이북에서 蘇聯軍이나 中共軍과 조우하면 방위태세를 취하고 그러한 조우를 즉각 워싱턴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38線 이남에서 美軍이 中共軍과 조우해도 계속 전진하지만 蘇聯軍과 격돌하면 정지하고 방위태세를 取하도록 하였다.<sup>65)</sup> 12월말 경 合參은 中國과의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도, 美國의 주적[主敵]이 蘇聯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달하였다. 그래서 美國은 韓國事態를 기존 병력으로 안정시키고 中國 本土에 대하여는 봉쇄와 대공공세를 전개하려고 하였다.<sup>66)</sup>

63) Manchester, William, *American Caesar*(Boston: Little Brown, 1978), pp. 711-13;

Lamphere, *FBI-KGB War*, *op. cit.*, pp. 238-239.

64) Manchester, *American Caesar*, *op. cit.*, pp. 712.

65) JCS 1776/122, 30 October 1950.

66) JCS 2118/4, 27 December 1950.

## 5. 結 論

美·蘇間의 대결 구도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對 韓國 信託統治의 의결, 다음해부터 2년 간의 美蘇 共同委員會 추진, 1947년 美國에 의한 韓國問題의 유엔 상정 등의 Initiative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 韓半島를 통일시켜 美國의 세력권 하에 두려는 장기전략의 포석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실패에 돌아가자 美國은 南韓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서라도 철수하는 수순[手順]을 밟았다.

이러한 와중에 美國의 전략과 정보 부서들은 1945년 말경부터 1950년 韓國戰爭이 발발하던 직전까지 韓半島에 막강한 蘇聯軍이 侵略해 올 것을 예견하고 駐韓美軍을 즉각 日本으로 후퇴시킬 것을 권고하여 왔다. 그러던 美國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大統領 주재 하에 作戰戰略會議을 열고 韓半島에서 美國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면서 韓國軍을 적극 지원하고 美軍의 투입을 大統領의 결심으로 지시하였다. 그때 벌써 蘇聯 極東空軍이 참전하면, 原爆[당시 25개 보유]을 사용하여 괴멸시키겠다는 방침이 제의되었다. 그리고 2주 후인 7월 13일에 이미 美 合參과 맥아더 장군 간의 戰略作戰會議에서 中共軍 참전시 원폭 사용, 공군기 30대로 北韓 탱크의 파괴가 가능하다고 판단, 3개 사단으로 [仁川] 上陸작전을 감행하여 北韓軍을 괴멸시켜 北韓 전역을 점령하며 韓半島를 통일시키겠다고 확인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전혀 몰랐던 美軍 수뇌부의 전략적 구상과 결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에게 준 교훈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선전한 그 전쟁에서 전략과 작전을 남 [소련]이 세워 주었던 관계로 융통성 있게 전쟁을 치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북한군에는 자체의 大戰略家가 없었던 듯하며 사단 병력 이상의 작전을 지도할 능력 있는 作戰指導官이 없었던 듯하다. 중국에서 의용군으로 잘 훈련되었었다는 中공군 출신들로 중국 내전에서 중

공군 사령탑[司令塔]에 의한 작전 지시만을 받아 중군했지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성안하여 지시하는 역할은 별로 못하였던 듯하다. 작전을 세우지 않고 남이 준 것을 가지고 전진할 때, 작전지시를 연락하는 방법의 자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인민군 자체의 전략작전 기술과 통신정보기술의 기여는 처음부터 남한을 석권할 능력 미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군의 많은 정보부서에서는 북한군을 무섭게 평가하지 않고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中共軍들이 한국전 발발이전부터 滿洲로 集結하기 시작하여 가을에는 4개 군 집단까지 증강된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미군 情報機關은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情報判斷하였다. 아마도 미국측이 그들의 작전을 鴨綠江 이남으로 한정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측에 보내 놓고 그를 근거로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한다. 그러한 실수를 최근에 밝혀진 문서에 의하면, 모두 맥아더 장군의 과오로 돌리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通信(Signet)에 의한 정보를 자기의 戰略作戰에 합치하지 않는 한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冷戰의 와중에서 韓國戰爭의 기원은 中·蘇 同盟條約, 中國의 介入 결정, 전반적인 蘇聯과 中國의 전략, 美國의 對韓政策을 포함한 전략과 臺灣에 대한 전략의 변화의 배경에서 연유하였다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새로운 문헌들의 발굴로 밝혀진 스탈린 주도의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염원인 “朝鮮의 統一”을 훨씬 뛰어넘은 광범위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꾸며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韓國戰爭을 통하여 스탈린의 투쟁은 毛澤東과 더불어 中國을 美國에 대항시켜 싸우도록 돌려놓았고 中國의 지도자가 美國과의 관계수립을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측도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10. 28,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한국전쟁, 미·소대결, 냉전, 전략정보, 중공군참전

<ABSTRACT>

Changes in the Defense Formation of the U.S towards  
Russia, China, North and South Korea  
- Based on Confidential Data Containing Strategic  
Information of the U.S Side -

Kim, Kee-Joe

Soviet and U.S. Armed forces entered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August and September, 1945, respectively.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Russo-American confrontation. From that point on to Korean War in 1950,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initiated the Cold War in Asia for the purpose of enlarging their territories into their sphere.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were engaged in strategic initiatives and intelligence maneuver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frontational situation was resulted into the hot Korean War.

After consolidating their Communist system of government in the North, soviet Union exerted their efforts to enlarge their sphere of influence into South Korea by infiltrating and directing insurgency into the South.

The United States XXIVth Corps also spared no time to Mobilize their Humint and Comint abilities to Collect valu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the part of Russians and North Korea, and they had certain success in that respect. The withdrawn American forces from South Korea in June 1949 did not go too far through Pacific, but most of them were relocated in Japan proper and Okinawa. As soon as the Korea War was broken out, they were the first ones to come to the aid of Korea, at the prompt

directions by the American leadership and the Far East Command in Japan in order to repel the North Korean invasion forces and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t the close of war.

Nonetheless, the American intelligence made fatal mistakes in their estimates on the Chinese intervention, even though they were provided with plenty of valu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They say, all faults came about from MacArthur's habitual tendency of not compromising with his intelligence staff.

Key Words : Korean War, Cold War, U.S-Soviet Confrontation, strategy and intelligence, Chinese military participation in Korea War

K C I